

# 군산 수상 태양광발전소 건설 순조

### 착공 2달만에 공정률 20% 기록...7월 상업운전 예정

### 연간 2만4000MW 전력 생산에 CO<sub>2</sub> 저감 효과 기대

군산2국가산업단지 내 유수지를 활용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6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5일 군산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주)피엔디솔라에 따르면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은 1월 초 착공, 현재 공정률 20%를 기록하고 있으며 7월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피엔디솔라는 유수지 수면을 20년간 임차해 에너지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주)와 공동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고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군산시는 직접 투자 없이 수면 임대 사업만 하게된다.

총사업비는 431억원으로 유수지 37만 2182㎡의 60%를 활용한 18.7MW 규모로 운영될 계획이다. 유수지란 집중강우로 급증하는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하류지역의 최대 유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특정지점을 말한다

수상태양광발전소가 가동되면 7000여 가구가 안정적으로 전기가 쓸 수 있는 용량인 연간 2만4000M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해 원유 566만 배럴 대체효과와 10년생 잣나무 160만 그루를 심는 CO<sub>2</sub>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정부의 탈원전, 석탄 화력 감축 정책 기조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에 가는 기세가 크고 유수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수상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발전소는 유수지 본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면에 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환경권 등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 부력을 이용해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는 수상 태양광은 오전과 오후 수면에 비치는 난반사까지 이용해 효율을 극대화하고 수질오염이나 산림 훼손이 전혀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군산 수상 태양광발전소. <군산시 제공>

시는 이번 사업으로 임대료 수입과 기부금, 정부지원금 등 향후 20년간 총 90억 원의 지방재정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과 함께 부력제 제조시설(스코트라)을 군산에 유치하고 사업 완료 까지 부력제 조립 6000명, 전기·건축 분야 시공 8000명 등 지역 인력 활용과 주요 자재의 관내 조달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피엔디솔라는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군산시 및 수상태양광 등 홍보를 위한 홍보관 신축에 20억원을 투자해 LED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연면적 200평 규모의 홍보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군=박금석기자 nogusu@kwangju.co.kr

## “군산 조선위기 극복”

### 군산조선해양기술협동조합 출범 사업 다각화·공동개발 등 추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조선산업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지역 조선·기계업체가 참여한 군산조선해양기술협동조합이 14일 출범했다.

군산조선해양기술협동조합은 지난해 7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어려움에 부딪힌 조선산업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군산국가산업단지 중소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자와 협력으로 만들어졌다.

조합은 해상풍력, 발전플랜트, 중소형 조선 등의 사업 다각화와 공동 개발, 영업, 수주, 생산, 납품, 구매 등을 추진한다.

조합 이사장인 김광중 변영중공업 대표는 “군산 조선산업이 매우 어려운 여건이지만, 기업들이 가진 기술을 모으면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며 “조선산업 중소기업체의 힘을 모아 희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영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은 “어려울 때 민간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노력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산업발전 모범사례가 되도록 중소기업 역량개발 사업을 최대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GM 군산공장 폐쇄결정 철회를” 더불어민주당 원순희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를 찾은 문동신 군산시장으로부터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철회 및 정부 정상화 방안 촉구 범도민 서명부를 전달받고 있다. 왼쪽부터 이범로 한국GM노조 자문위원,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 문동신 군산시장, 우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연합뉴스

## 익산보건소 “여성 요실금 걱정 덜어드려요”

### 자조관리건강교실 운영

익산시보건소가 권역별 요실금 자조관리건강교실 입학식을 1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건강교실은 40대 이상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은 요실금 증상을 호전시키고 진

행과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교실에는 8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다.

시는 농촌지역 40세 이상 여성 45.4%가 요실금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여성의 활동성 저하와 불만감 조래, 정서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익산=유정영 yjy@kwangju.co.kr

이 교실은 오는 4월 18일까지 매주 수요일 황등노인종합복지관과 금마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익산시는 요실금 자조관리교실이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유정영 yjy@kwangju.co.kr

## 정읍 명소 ‘쌍화차 거리’ 활성화 나선다

### 행안부 ‘골목경제활성화’ 선정

### 11억 투입...프리마켓 운영 등

정읍시의 장명동 쌍화차 거리가 행정안전부 ‘골목경제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정읍시는 이번 선정에 따라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특별교부세 등 11억원을 투입해 쌍화차 거리 활성화 사업에 나선다.

시는 도시활력증진사업과 연계해 경관과 업소 내부 인테리어 개선을 비롯해 가능성 쌍화차 개발과 청년 창업물, 프리마켓 운영 등의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쌍화차 거리 활성화를 위해 세부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골목 특성과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민과 상인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쌍화차 거리는 정읍경찰서에서 정읍세무서까지 이어지는 350여m 도로 양쪽에 모두 13개소의 전통찻집이 자리하고 있다. 이 거리는 정읍을 대표하는 아홉 곳의 명소(九鼎) 중 하나로도 유명세를 올리고 있다. 이 거리는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됐으며 30년을 넘긴 쌍화차 찻집을 비롯해 크고 작은 찻집이 자리 잡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쌍화차 거리 활성화를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골목 특성에 맞는 사업 개발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순창군, 장군목 생태관광지 조성 본격화

### 섬진강 상류 ‘요강바위’ 일대

### 자전거·둘레 탐방 길 등 계획

순창군은 동계면 어치리 섬진강 상류에 있는 요강바위 일대를 생태관광지로 조성한다.

순창군은 15일 장군목 생태관광지 사업의 하나로 요강바위 일대에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해 새로운 관광지로 가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올해 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요강바위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진입로와 징검다리, 둘레 탐방 길을 만든다.

물억새, 꽃창포, 구절초를 심어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가꾼다.

내룡마을~장군목까지 1.2km 자전거 길에 화초류 34만주를 심는 사업도 추진한다.

구암정 주변의 철계 계단을 친환경 돌계단으로 바꾸고 구미교까지 백일홍을 심는 사업 등도 10월 말에 완료할 계획이다.

요강바위는 동계면 어치리 내룡마을 주민이 수호신처럼 여기는 돌이다. 높이 2m, 폭 3m 무게가 20t에 달하며 가운데 홈이 움푹 파여 요강처럼 생겼다. 하에 요강바위로 불린다.

아이를 낳기 원하는 여인이 요강바위 위에 앉으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전설도 전해지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올해 요강바위 탐방로 조성을 시작으로 섬진강 생태관광 자원사업이 본격화된다”며 “장군목 주변의 아름다운 생태계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기자 jyg@kwangju.co.kr

## 고창군 ‘농민 편의 도모’ 농기계 임대사업 활발

### 기계 점검·안전교육 등

고창군이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농민 편의 도모에 앞장서고 있다.

15일 고창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 관리기와 심경로타리, 굴삭기 등 400여대의 농기계 점검을 완료했다.

군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영농편의 도모는 물론 농기계 구입부담 완화에 일조하고 있다.

군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지난 2009

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임대사업소에는 64종 415대의 농기계가 구비돼 농가에 임대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1510여 농가에서 4630여대의 농기계를 임대해 사용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임대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의향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겠다”며 “아울러 오는 23일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안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으로 농기계 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기자 phj@kwangju.co.kr

몸해보정 된다는데 혈액순환 안되고 갑갑함 째야? **가능성속옷 장수기업**

가능성속옷의 명가

KCPRA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 편안한착용감 | 해양심층수 각종미네랄  
부위별로 특별하게 | 탄성GOOD! 흡발습GOOD! | 이온, 실크아미노산,  
생리적인 불편을 해신 | 일본 도레이社 LYCRA | 원적외선 특수물질가공  
발단면역각형 사용

www.aroma-life.co.kr

1588-2219